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지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6월 7일 금요일 (음 5월 5일) 제230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내 곳곳 현충일 추념행사 잇따라 “선열들의 뜻·정신 잊지 않을 것”

전북지역 곳곳에서 '제64회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명복을 빌고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6일 군경묘지와 충혼탑 등에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 전북도는 국립익실호국원 현충탑 앞 광장에서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희생정신을 위하는 추념식을 가졌다. 추념식은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장, 기관 단체장, 도민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추념식은 현화 및 분향을 비롯해 추모 헌시 낭독에 이어 추모곡 독창,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추념사, 도립여성중고교의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고 따르다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전주군경묘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도·시의원 보훈단체장,

전북도, 현충일 추념식
현화·분향을 비롯해
송지사추념사 등 진행
전주·익산·군산 등서
선열·호국영령 추모
유가족 및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을 열었다. 익산시는 팔봉군경묘지에서 박철웅 익산부시장을 비롯한 보훈가족,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및 경찰서장, 각 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정읍·고창 등도 각 지자체 주관으로 군경묘지 및 충혼탑에서 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가졌다. /김진성 기자



제64회 현충일인 6일 익실군 국립익실호국원에서 전북도가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분향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 “애국, 상식의 선 안에서 생각해야”

국립현충원 거행 현충일 추념사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서울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이렇게 밝힌 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보훈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대전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애국과 보훈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다”며 국민이 함께 마음을 모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올해 추념사에서는 보수와 진보 간 이념 대결에 대한 메시지에 보다 더 힘을 실으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애국 앞에 보수와 진보가 없다. 기득권이나 사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마음이 애국”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린다면 보수는 진보든 진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우리에게는 사람이나 생각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며 대립하던 이념의 시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에는 보수와 진보의 역사가 모두 함께 어울려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독립과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는 보수와 진보의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보수이든 진보이든 모든 애국을 존경한다”며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누구나 보수적이기도 하고 진보적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3면 - 상습 고액체납 최대 30일 유치정행 4면 -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가축 폭염피해 최소화 총력

전북도,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5억 신규로
가축사육환경 개선·재해보험 지원 예산 확대

지난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친 폭염으로 최근 100년 기상관측 이래 폭염일수가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가축면역력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폭염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과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도 전년보다 예산 17억원을 확대해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폭염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시설·장비도 기존 자가발전기, 제빙기, 환풍기, 안개분무기에 더해 축사 쿨링패드 및 가축 냉수 급수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약품지원이나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만큼 오는 6월 이전까지 조기 추진 완료하도록 축산농가 폭염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장기대책으로 축사시설현대화와 온·습도 조절 및 환기제어 시스템 등이 적용되는 스마트축사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축산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31일 도·시·군·농협 축산사업단, 생산자단체, 계열사 등 24개 기관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도내 14개 시·군 축산부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9월까지 가축 폭염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피해 상황을 신속하고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하여 폭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손해 평가를 통하여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축산종사자 및 협회 정기총회 참석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5회 650여명에 대한 폭염예방 가축관리요령 교육 및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했고, 시·군 협조를 통해 언론보도 11회, 문자메세지 전송 5900여통, 510여개 마을에 대한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전년 동기보다 7.2% 끌어올려 폭염취약 축종(돼지, 가금류)에 대한 가입률을 농가수 기준 93.2%로 확대했다. /김진성 기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 대응을”

최용범 행정부지사, 도내 시군 영상회의서 주문

전북도는 지난 5일 도내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방역대책 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중국 발생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지난달 북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직접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최용범 부지사는 영상회의에서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대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감염돼지의 눈물, 침, 분변 등 분비물로 직접 전

파되며, 잠복기는 4일에서 19일로 일단 감염되면 42°C의 고열과 구토, 피부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에 폐사하는 치사율 100% 질병이다.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 유입돼 발생할 경우 양돈산업이 붕괴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제1종 법정 전염병이다.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했으나 최근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에 이어 지난달 30일 북한에까지 감염이 확인되었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